

# ‘화순 적벽투어’ 자리 왜 없나 했더니 여행사서 선착순 예약 싹쓸이

올 관람객 2만8780명 중  
절반 가까이 여행사 통해 관람  
지역민 불만...예약제 개선 필요

여행사들이 지난 1년간 사전 예약 방식으로 진행했던 화순 적벽 투어 입장권을 무더기로 사들여 여행상품으로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화순군은 여행사측이 입장권을 ‘싹쓸이하다시피’ 확보하면서 일반 관람객들의 불만이 잇따라자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16일 화순군에 따르면 올 한해 화순 적벽투어 이용객 2만8780명 가운데 40%가량은 사전에 단체 관람을 예약한 여행사를 통한 관람객으로 집계됐다.

일부 여행사의 경우 자사 여행상품에 화순 적벽투어 코스를 끼워팔기 위해 ‘사전

선착순 예약제’에 따라 허용 관람 인원(하루 384명)의 50~60%를 인터넷으로 무더기로 확보해온 것으로 화순군은 파악했다. 미리 확보해뒀다가 상품이 팔리지 않을 경우 막판에 예약을 취소하면서 일반 관람객들이 관람을 못하게 되는 일도 잇따랐다.

현재 화순 적벽 투어의 경우 매주 수·토·일요일에 한해 하루 3차례 제한적으로 개방되고 있으며 관람자가 화순군청 홈페이지에서 2주 전 사전 예약 방식으로 관람이 진행됐다.

여행사들은 1인당 최대 10명까지 동반 여행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감안, 대당으로 주말·휴일 관람권을 확보, 불과 5~10분 안에 예약이 모두 완료되는 상황이 빚어졌고 일반 관람객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여행사 측은 “예약 접수창이 뜨자마자 열심히 클릭해서 자리를 확보한 것이기 때

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달 관람 일정이 잡혀있는 18일(수)·21일(토)·22일(일)·25일(수)·28(토)·29일(일)은 홈페이지상 ‘예약 접수가 마감됐지만 서울 A여행사와 부산 B여행사를 통해서도 최소 50명까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 “내년 3월 재개방 전 적벽투어 ‘여행사 싹쓸이’ 논란을 잠재우도록 예약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와 화순군은 광주·전남 상생발전 방안의 하나로 지난 42년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출입이 제한됐던 화순 이서적벽을 시범 개방을 거쳐 지난 3월부터 일반에 개방했다. 상수원 보호를 위해 매주 수·토·일요일 하루 3차례 개방되며, 사전 예약을 거친 384명(1일)에 한해서 교통료 5000원을 내고 관람 가능하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살인 물대포 책임자 처벌하라” 광주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민주주의 광주행동’ 회원들이 16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 민중총궐기대회에서 물대포를 맞아 생명이 위독한 보성 농민 백남기씨의 쾌유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남영전구, 수은 존재 감췄나 몰랐나

이번 주 수은 사태 업체·환경청·복지공단 입장 발표 의혹 해소 촉구

근로자 수은 중독 및 수은 불법 매립 사태와 관련, 광주 하남산단 전구업체, 영산강유역환경청, 근로복지공단 등이 이번 주 중 일제히 입장발표와 조사내용 브리핑을 예고하면서 그간 제기된 의혹이 해소될지 관심이 쏠린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과 근로복지공단 광산지사 등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남영전구 수은 불법 매립 의혹 조사 결과와 근로자 수은 중독 산재처리 여부를 조만간 발표한다. 근로자 수은 집단 중독 사태를 불러온 전구업체 남영전구 측도 김철주 대표가 직접 광주를 찾아 업체 측 입장과 사고 경위에 대해 설명한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들 기관과 업체가 내놓아야 할 설명에는 아래의 의혹에 대한 납득있는 해명이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선 남영전구 측이

수은 형광등 제조설비 철거 작업 지시 당시 수은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지난 2005년부터 2014년 형광등 제조 시설 폐쇄 전까지 발생한 수은 폐기물의 행방, 시설 철거 과정에서 불법 매립된 수은의 총량, 지난 10년간 수은 형광등 제조에 투입된 근로자들의 건강 상태(대상자와 건강 점검 방법) 등이 그것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남영전구 측은 근로자 수은 집단 중독 사태가 불거진 이후 ▲해당 시설에 수은이 남은 줄 몰랐다 ▲매립된 수은의 총량은 우리도 모른다 ▲생산일지가 없어 그간 발생한 수은 폐기물의 총량과 행방은 알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애초 공장 내부 지하 토양에 불법 매립된 수은의 총량을 3kg으로 본 것도 업체 측이 시설 가동 당

시 사용한 수은의 양이 일 평균 3kg이었다는 점을 들어 막연히 추정된 것일 정도로 조사가 부실한 상황이다.

신명근 노무사는 “철거 공사의 경우 수은 시설이나 여부에 따라 공사 단가가 수십배씩 차이가 있어 이를 고의로 은폐했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라며 “수은 존재 사실을 고의로 감췄나, 모르고(과실) 감췄느냐에 따라 대표자 처벌 수위 또한 달라지므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철갑 조선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당국은 퇴직 근로자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내용만 발표하고 있지만, 건강 조사 범위와 그 방식, 점검 의료기관에 대한 세부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제대로 건강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여전히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

## 교통배려 10원칙 안지킨 교통사범 가중처벌

광주지검, 준수자는 처벌 완화

‘교통 배려 10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가중 처벌된다. 반면, 배려 교통을 지키려다 부득이하게 사고가 나면 처벌이 완화된다. 이는 광주에서 시작한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검찰의 조치다.

광주지검은 16일 ‘교통 배려 10대 원칙’ 준수 여부를 운전자 처벌 수위에 반영해 배려 교통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통 배려 10대 원칙’은 ▲보행자를 부모형제처럼 ▲대형차는 소형차를 ▲보복운전 근절하고 양보운전 문화를 ▲여성·초보운전자 배려 ▲차로변경차량에게 양보를 ▲어린이보호차량 주위에선 우선 정지 ▲긴급차량은 먼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서행 ▲불법 끼어들기·꼬리물기 금지 ▲임신부·어르신·장애인 우선 배려 등이다. 광주지검은 교통사고 조사 결과, 이를 지키려다 부득이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 또는 벌금액을 낮춰 줄 계획이

다. 반면,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벌금액을 2~3배 가중 또는 구공판(정식재판회부), 중대사안의 경우 구속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지검은 지난 10월2일 광주에서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선포식을 갖고 ‘S(시작해요), O(오늘부터), S(서로 배려를)’ 1000만명 릴레이 동영상 캠페인과 ‘전용 페이스북(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활동 등 전국 최초로 참여형 국민 문화운동을 펼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피해 여성 성폭행 논란

전남경찰청, 경찰관 파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성폭력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경찰이 파면됐다.

16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성폭행 혐의로 입건됐다가 최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순천경찰서 소속 A(46)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이날 열어 파면 징계를 의결했다.

파면은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중징계에서도 강한 처벌이다. A경위는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

## 광주 시립묘지 관리비 체납 ‘골치’

망월·영락공원 2곳 미납액 10억원 넘어

광주 시립묘지 관리비 징수실적이 저조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서미정(비례) 광주시의회 의원은 16일 시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립묘지 관리비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다른 시·도 사례를 검토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광주 1시립묘지인 망월묘지공원은 8억 7000만원의 관리비를 부과했으나 이 중 59.8%인 5억2000만원이 체납됐다. 2시립묘지인 영락공원은 부과액 37억

7600만원 가운데 16.9%인 6억3900만원이 건지지 않았다. 망월묘지와 영락공원은 별초비 등 관리비 명목으로 1년에 1만원씩, 모두 5만원을 5년에 한번 징수한다.

그러나 과태료와 달리 관리비는 강제징수할 규정이 없어 시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기 어려운 실정이다.

묘지에 체납 관련 서류를 부착했다가 심한 반발을 사기도 했으며 관리비를 체납했다고 해당 묘지 발조를 하지 않을 수도 없다고 시는 호소했다. /최권일기자 cki@

광주시 유해물질 사업장 점검

광주시는 최근 광산구 남영전구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수은 유출 사고와 관련, 특정 유해물질 배출사업장을 일제 점검한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특정 유해물질 배출사업장 150곳 중 유독물을 사용하는 사업장 23곳, 지난해 이후 폐업 신고한 13곳, 휴업 중인 6곳 등 모두 42곳을 우선 점검하기로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해고 앙심...석재 공장 묘지 상석용 석재 60여개 파손

○자신을 해고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일했던 석재공장에 침입해 묘지 상석용 석재 수십여개의 묘사리를 부수고 달아난 50대 석재 기술자가 경찰서행.

○16일 곡성경찰청에 따르면 김모(54)씨는 지난 6월11일 오후 2시에 곡성군 오산면 조모(67)씨의 석재공장에서 망치와 정을 이용해 묘지 상석용 석재 60여개의

묘사리를 부수 3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끼친 혐의(재물손괴).

○김씨는 공장 대표 조씨가 파손된 석재 보수 작업을 위해 자신을 다시 고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범행을 저질렀는데,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결국 범행이 발각돼 1000만원을 배상하고, 급여도 없이 보수 작업을 한 것도 묘사리 행사처벌까지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 (유)수호부동산중개법인은 법원경매 낙찰대리업무, NPL(부실채권)채권매입, 매각, 중개, 경락잔금대출, 질권대출 & 부동산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기업입니다.

**NPL 질권대출, NPL매입,매각 전문**  
(은행채권중개 및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전문)  
**전국 최저금리!! 전국 최고 한도!! NPL 잔금 5.2~5.9% 중도상환 無**

(유)수호중개법인 물건 광고					
광주지원	2014타경 30504	주택	군산지원	2012타경 7036	근린시설
광주지원	2014타경 20736	상가	남원지원	2015타경 377	공장
순천지원	2014타경 7817	근린상가	광주지원	2013타경 10367	공장
전주지원	2015타경 8853	근린상가	광주지원	2015타경 1428	공장
목포지원	2014타경 16341	숙박시설	광주지원	2014타경 6914	임야
전주지원	2015타경 5779	숙박시설	광주지원	2014타경 29078	사무실
광주지원	2013타경 10367	공장	수원지원	2015타경 9386	근린시설
정흥지원	2015타경 605	공장	서울동부지원	2015타경 3901	근린시설
광주지원	2014타경 30627	공장	남원지원	2015타경 179	아파트
전주지원	2015타경 3629	공장	의정부지원	2013타경 16018	임야
순천지원	2015타경 2628	공장	광주지원	2015타경 375	의료시설
목포지원	2014타경 13618	아파트형공장	목포지원	2013타경 727	근린시설
군산지원	2014타경 9739	공장			

광주지역 추천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가능

##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파트너스는 하나/기업/현대스위스/삼화/솔로몬 등 다수의 금융기관 담보부 NPL매입, MG 질권대출협약, JB캐피탈 NPL사업협약, 담보부NPL 수익계약 매입/중개 4000억원 돌파, 수협중앙회 NPL 질권대출 수탁법인 승인된 NPL전문 기업입니다.

**부동산 중개 및 부동산 경매, NPL 업무에 관심있거나 참여하실분 선정 모집합니다.**

NPL매입, 중개, 질권대출 담당  
경매경락잔금 대출 지원 담당

본부장 010-4557-3034  
이 사 010-2170-3034

# 유한회사 수호 부동산중개법인

사업자등록번호 464-88-00084 / 법인등록번호 200114-0058676